

“34년만의 영산포 뱃길 복원 감격

물류의 중심지 옛 영화 되찾을 것”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양치권 위원장

“영산강 뱃길이 3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영산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산강 내륙 뱃길이 마침내 열리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21일 나주시 영산동 영산포 구에서 ‘영산포구 복원 행사’를 지켜본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이하 뱃길추진위) 양치권(63) 위원장은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이뤘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뱃길 추진위는 지난 1998년부터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영산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보아왔던 고향의 모습을 되찾아 영산포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처음 100여명에 이르던 추진위 회원들도 14년이 흐른 지금에는 500여명으로 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었다.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등분서 주었고,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치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영산강의 모습을 되찾고

자 환경정화 운동도 계울리하지 않았다. 모두 영산포의 옛 영화를 되찾고 작은 물그릇 때문에 매년 장마철이면 홍수에 시달렸던 영산강 인근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영산강의 모습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 뱃길은 서남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물론 전남의 곡창지대인 나주평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살고 오르내리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은 길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치기도 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영산강의 모습을 되찾고

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 자신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의 노력으로 지난 1976년 하류인 목포 앞바다에 거대한 둑이 들어서면서 수량 부족 등으로 죽어가는 강으로 변했던 영산강이 이제는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상징적인 의미로 100t 유람선 왕건호가 시험 운행을 막혔다. 그리고 옛 영산포 물류의 중심지였던 영산포구에는 200t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다. 전체 80km 구간 중 나주 지역의 25km 구간의 뱃길만이 열린 것이다. 또 예전 물류 중심지 영산포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을 준비해 야할 때입니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영산강이 물류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수질을 회복해 많은 사람이 찾는 영산포로 만들겠습니다.”

/김경인기자 kki@



투구처럼 생긴 꽃잎...해마다 옆으로 이동



<129> 투구꽃

투구꽃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풀로 우리나라 각처에서 자란다. 사진 속의 그늘들찌귀는 개싹눈바꽃, 선투구꽃, 세잎돌찌귀, 짹눈바꽃, 진돌찌귀와 함께 2006년 12월에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투구꽃으로 통합 정리됐다.

꽃잎이 투구처럼 생긴 투구꽃은 식물체가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물해의 데ing뿌리가 그대로 썩고 이듬해에는 그 옆에 있던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매년 조금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강진 신전초 5년만의 수학여행

“금호터미널·청년회 감사합니다”



금호터미널이 최근 5년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농촌지역 초등학교의 여행을 후원해 호응을 얻었다.

금호터미널(사장 김상선)은 24일 강진 신전초등학교 수학여행에 영화관람과 금호페밀리랜드 놀이시설의 자유이용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금호터미널은 CGV터미널점과 금호리조트의 협조를 받아 신전초등학교 전교생 48명과 교사 등 56명에게 CGV영화관에서 최신 영화시스템인 4D 영화관람과 금호페밀리랜드에서 놀이시설을 이용 등 도시여행을 제공했다.

신전초등학교 박갑기 교감은 “학생 수 감소와 여행비 부담 때문에 최근 5년간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며 “금호터미널과 청년회의 도움으로 농촌 어린이들이 도시 체험 기회를 갖게 돼 고맙다”고 말했다.

금호터미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항상 생각하며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눔의 순을 맞잡겠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혜자 나눔실천 국민포장



매우 김혜자씨가 우리 사회 나눔 실천 유공자로 포장을 받는다.

김혜자씨는 20개 이상의 빙곤국을 방문해 참상을 알

리고, 2004년에 발간한 책의 인세 전액을 기부하는 등 20여년간 나눔 활동에 앞장서온 공로로 국민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조대병원 알레르기비염 강좌



조선대병원 알레르기비염 강좌는 26일 오후 2시~4시까지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개최된다.

인천과 경기도 4개 시·군에서 개

“행복도시 광주의 화합·우의 보여주겠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에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이 광주 선수단을 이끌고 28일 인천에서 개막하는 2011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다.

인천과 경기도 4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2만여명이

참가해 총 51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김회장은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중 비단을

이 가장 낮은 도

시 그리고 가장 건강한 도시 1위로 선정되는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도시다”며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활기찬 광주 시민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관광전남 이미지 알리는 홍보사절 될 것”

이탁우 전남생활체육회장

“안전하고 없는 모범적인 참여로 지역생활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전남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탁우 전남생활체육회장이 전남 선수단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16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생활체육 인들의 잔치다. 그동안 전남이 입장

상 1위와 스포츠 730상 수상 등의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올해는 지역 홍보사절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개회식을 통해 F

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2012여수 세계박람회, 2013전남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의 홍보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대여고 전국 시·도대항 피구대회 우승

조대여고(교장 국석표)가 제1회 전국 시·도 대항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조대여고는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3

팀 리그방식으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서울 세화여고와 경기 동탄여고를 누르고 우승해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조대여고 피구동아리(지도교사 김종의)는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생활체육전국구연합회의 지원으로 피구규칙과 기술 등을 교육받아 전국대회를 전부 해왔다.

/김경인기자 kki@

동강·후성학원 이원묘 이사장 별세

학교법인 동강·후성학원 이원묘 이사장이 24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동강·후성학원은 동신중·동신여중·동신고·동신여고(동강학원)와 동강대학(후성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원묘 이사장은 학원 설립자인故 이장우 박사의 부인으로서, 동강·후성학원이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기까지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2002년부터 학교법인 동강·후성학원 이사장을 맡아왔다.

고인은 지난 2004년 재산의 사회 환

원을 위해 사재 50억원을 들여 장원문화재단을 설립,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육자들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빙소는 광주시 북구 무등장례식장 2층이다. 발인은 26일 오전 11시며, 장자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이다. 유족으로는 딸 이민숙 씨와 며느리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등이 있다.

/채희종기자 chae@

한국B.B.S 광주·전남연맹 문화예술공연 대회



(사)한국B.B.S 광주·전남연맹(회장 김영수)은 최근 광주시청 앞 평화공원에서 지역 초·중·고등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청소년녹색생활실천환경경기 및 문화예술공연 대회’를 개최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최병선씨 장남 경운군 임세빈(광주체육관 관장)씨·장녀 지현양=29일(토) 오후 1시 20분 수와비세우당컨벤션(경복궁) 1층 로즈홀,

▲정윤택(고속타이어)·신정자씨 차남 태수군 설동산(광주일보 윤전부)·이연순씨 장녀 유진양=29일(토) 오후 1시 천주교 북동성당.

▲최광우(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회계과장)·김정숙씨 장남 훈규군 장양자씨 장녀 순진희양=30일(일) 낮 12시 40분 상무리초컨벤션 웨딩홀 1층 아이비홀.

▲정광중 31회·고 29회 동창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회장 구만본)=

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or.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경.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동복오씨 문현공 시향일(1세~5세)=29일(토) 오후 11시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31-1(효사재)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대촌중학교 출동문화체육대회(회장 김운기)=30일(일) 오후 9시 대촌중학교 운동장 011-602-2503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를 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

▲이원묘 이사장은 학원 설립자인故 이장우 박사의 부인으로서, 동강·후성학원이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기까지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2002년부터 학교법인 동강·후성학원 이사장을 맡아왔다.

고인은 지난 2004년 재산의 사회 환

(1577-5364).

▲승관성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자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부음

▲이원묘(학교법인 동강·후성학원 이사장)씨 별세 이민숙 씨 모친상

김필식(동신대학교 총장)씨 시모상=발인 26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